

衣服範疇가 젊은이의 對人知覺에 미치는 영향 —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과 관련지어—

金 在 淑。金 姬 淑

(忠南大學校 衣類學科)

The Effect of Garment Category, Fashionability and Wears' Body type on Impression Formation

Jae Sook Kim and Hee 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92. 6. 22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1) to extend the cognitive categorization theory in an attempt to explain the of garment category, fashionability, and wearer's body types on impression formation, and 2) to find out structures of wearer's impressional dimension and wearer's professional image.

The research included a quasi-experiment and survey. The experimental design was a 2³full factorial design of 3 independent variables.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e study were a set of stimuli and a response scale. The stimuli consisted of 8 drawings made by 3 independent variables (garment category, fashion level, wearer's body type).

Result were as follows: 1) Garment category, fashionability and wearer's body 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impression of the 5 factors-evaluation, potency, appearance, sociability and good-bad, with exception of wearer's body type which was nonsignificant to the potency factor. 2) Garment category was most effective on the evaluation and the potency. However wearer's body type was most effect on the appearance factor and fashionability variable was most effective on the good-bad factor. It was concluded that the results supported the cognitive categorization theory on impression formation and a cognitive categorization hypothesis of clothes.

I. 서 론

의복이 印象形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을 통해 증명되었으나 의복 변인이 매우 다양하고 통제 가 어려우며 脈絡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상형성과정에서 정확한 의복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이유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단계라고 사료된다. 의복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김재숙(1991)의 연구에서는 衣服範疇化

이론을 도입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의복의 범주화 이론은 對人知覺과정에서 의복의 효과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었다. 본 연구는 중년을 대상으로 한 Thurston(1990)의 연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재숙(1991) 연구의 후속 연구로써 젊은이에게도 의복을 통한 對人知覺과정에서 範疇化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이로써 의복범주화이론이 대인지각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상형성과정에서 의복범주, 의복의 유행성, 의복착용자의 체형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배경은 사람들이 자극물을 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극물을 範疇化하여 지각한다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형태주의의 이론의 한 분야인 범주화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설계 되었다.

1. 범주화

형태주의 접근에서는 印象形成과정에서 개인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입력으로부터 의미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유의미한 형태로 조직화한다고 가정한다. 범주화란 지각자가 자극물을 접했을 때 그것들을 어떤 집단이나 범주의 일부분으로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Cantor 등(1977)에 의하면 지각자가 자극물을 접했을 때 어떤 시간이나 사고를 요하지 않고 즉각적, 자발적으로 범주화하여 지각한다고 하였다. Bruner(1956)는 이런 범주화의 전체기초는 유사-비유사라고 제시하였다. 범주화 과정을 형태주의 이론에서 Bruner(1957)는 어떤 특별한 단서에 촛점을 맞추고 범주전형에 의하여 지각대상을 분류하여 지각체의 비슷한 점을 추리하는 유사성 지각과 차이점을 추리하는 대조적 지각에 의하여 분류된 단서의 해석 및 추리한 다음 자극물의 특성 및 행동에 대한 예측으로 설명하였다. 신체적 특징들 대개는 그들의 이차 성장들과 문화적으로 규정된 의모의 차이들을 기초로 해서 자극물을 범주에 할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지각자들은 여러 종류의 독립된 지각체를 모두 다르게 지각하는 대신에 자극물간의 유사성, 대조점을 지각 판단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극물을 조직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자극물 지

각의 복잡성을 줄이고 정보 처리를 신속하게 한다.

2. 의복범주화에 대한 연구

노인들을 被驗者로 조사한 김재숙(1991)의 연구에서 의복은 한복과 서양의복, 의복의 유행성, 착용자의 나이를 변인으로 하여 의복을 착용한 모델을 피험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피험자들은 한복과 서양의복이라는 範疇曲刊을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주어진 특성들을 평가하였다. 한복착용자는 好惡評價, 和親, 開化, 家庭管理次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서양의복 중 크라식 의복착용자는 호오평가, 화친, 개화, 가정관리 차원에서 가장 좋은 인상을 받았고, 반면에 서양유행 의복 착용자는 호오평가, 가정관리 차원의 인상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으며 화친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강혜원(1990)의 연구에서 한복착용자는 서양의복착용자보다 더 품위 있는 사람으로 지각되었고 여자 정식 한복착용자는 평가 차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능력 차원에서는 가장 능력있으며, 화친차원에서는 가장 우호적, 협조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의 형태에 따라 착용자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수트 형태의 정장차림은 여성 드레스 착용자보다 더 專門職 이미지가 강하며(Thurston, 1990, Delong 등, 1983, Johnson, 1987), 여성관리직 특성평가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Cash, 1985), 또 한 남향성 의복 특성으로 지각되어 착용자의 관리직 특성 지각에 긍정적이었다(Forsythe, 1984, Forsythe, 1988, Workman, 1985). 수트 형태의 격식차림은 약식복장착용자 보다 더 지위가 높고 활동적이며 권위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Damhorst, 1985, Harp, 1984).

유행하는 의복은 착용자에게 높은 사회적, 사교적 인상을 주었으며(Cornner, 1975, Johnson, 1977), 크라식 의복은 높은 專門職 이미지(Thurston, 1990)를 주어 그 착용자를 간부 사원으로 지각하게 하였다(Sweat, 1985). 대담한 유행 의복 착용자는 매력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으나 반면 신뢰성이 없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유형의 의복을 착용한 착용자를 보고 지각자들은 믿을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지각하였다(Paek, 1986). 그러나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들은 유행하는 의복에 대해 전방지다, 가정형이 못된다 등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김재숙, 1991).

3. 착용자 변인

對人知覺과정에서 착용자의 性別, 年齡, 身體的 魅力 등은 착용자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각자들은 마른 체형의 착용자가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 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지각하였고 (Douty, 1984, Lennon, 1988), 착용자의 나이, 체형, 의복범주를 단서로 사용하여 전문적 이미지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착용자의 나이와 체형은 전문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 (Thurston, 1990). 얼굴 특징, 체형 균형 및 체중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적 매력은 직장지원자의 경우 호의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었고 고용결정에 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Depboye, 1977).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衣服範疇 :

의복을 크게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한복과 서양의복으로 나눈다.

2) 衣服着用者 :

실험에 사용된 刺載物 속에 의복을 착용한 인물그림을 의미한다.

3) 衣服의 流行性 次元 :

의복의 유행주기 형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며 크라식 의복과 유행의복으로 분류한다.

4) 韓服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착용자의 의복으로 치마와 저고리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유행 한복과 크라식 한복으로 분류된다.

5) 西洋衣服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착용자의 의복으로 투피스 형태의 유행 서양의복과 크라식 서양의복 두 종류로 구성된다.

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가설 1

衣服範疇(한복; 서양의복)는 인물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설 2

衣服의 流行性(크라식의복; 유행의복)은 인물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설 3

着用者の 體型(비만 체형; 정상 체형)은 인물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가적 관심>

刺載物이 專門職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조사

3.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자극물은 衣服範疇, 流行性, 體型의 요인 설계에 의하여 8개의 자극물이 설계되었고 자극물의 타당성을 위해 준거집단으로 충남대 가정대생, 대학원생, 교수에게 2차에 걸쳐 조사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의미미분척도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형용사 150개를 채택한 후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한 후 30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다. 전문적 이미지 측정을 위한 도구는 Thurston(1990) 등이 사용한 문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후 준거집단의 도움과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하여 완성하였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被驗者は 충남대학교 가정대, 문과대, 공대, 경상대, 자연과학 대학생 400명(남: 200, 여: 200)이었고 예비 실험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1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기본 통계 자료조사(나이, 성별, 학과), 刺載物의 평가(의미미분척도에 의함), 刺載物에 대한 印象기술(자유응답 형식)이 조사되었다. 자료 분석은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변량분석, X^2 검증, 던전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자유응답 자료는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IV. 실험결과의 분석

남녀 차이의 유무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남녀 대학생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인지각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

1) 의복착용자가 전달한 인상차원

8개의 刺載物을 30개의 형용사쌍 단어의 의미미분척

도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주성분 모형(Principal component)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評價的, 力能的 次元, 外貌的 次元, 和親次元, 好惡次元의 5개의 印象次元이 도출되었다. 최종적 요인 도출을 위해, 본 연구의 요인 도출에 적합하지 않은 형용사상(요인값이 0.5 이하인 것, 두개 이상의 요인 성격을 지닌 것)을 제외한 다음 최종적으로 5개의 인상 차원이 포함되었으며 채택된 형용사 쌍은 모두 26개이었다.

2) 가설검증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미미분척도는 7점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그 점수에 의하여 가설 1, 2, 3 모두를 要因 점수를 이용하여 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0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인상이다. 가설 1, 2, 3에 대한 규명은 아래와 같다.

〈표 1〉 의복범주가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

인상차원	한 복	서양의복.	F
評價的	0.45	-0.45	200.28**
力能的	-0.49	0.50	259.78**
外貌的	-0.19	0.19	28.59**
和 親	0.21	-0.21	36.32**
好 惡	0.10	-0.10	7.82*

**p<0.001 *p<0.01

a: 0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음(−)의 값은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을 의미함.

가설 1: 衣服範疇(한복, 서양의복)는 인물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과 같이 의복범주에 의해 착용자의 評價的, 力能的, 外貌的, 和親, 好惡次元의 印象이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 내용은 한복 착용자는 評價的 次元 인상에서 좀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즉, 더 단정하고 점잖으며, 안정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도덕적이며, 생각이 깊고 예의 바르며, 깔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화친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서양의복 착용자는 力能的 次元에서 좀 더 좋은 인상을 주었다. 즉, 더 논리적이고 결단력 있으며,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이성적이고 지배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외모적 차원에서 좀 더 호의적인 인상을 전달하였다.

가설 2: 衣服의 流行性 次元(크라식의복, 유행의복)은 인물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2〉와 같이 의복의 유행성이 의해 評價的, 力能的, 外貌的, 和親, 好惡次元의 印象이 영향을 받았다.

크라식 의복 착용자는 평가적 차원에서 좀 더 호의적인 인상을 주었다. 즉, 더 단정하고 점잖으며, 안정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도덕적이며, 생각이 깊고 예의바르며, 깔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또한 역동적 차원에서 좀 더 호의적인 인상을 주었다.

유행의복 착용자는 외모적 차원에서 좀 더 호의적인 인상을 주었다. 즉, 유행의복 착용자가 더 눈에 띠고 세련됐으며, 화려하고 어울리며, 착용자가 날씬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더 호의적인 호오 차원의 인상을 전달하였다.

〈표 2〉 의복의 유행성이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

인상차원	크라식	유 행	F
評價的	0.38	-0.39	138.38**
力能的	0.13	-0.13	13.49**
外貌的	-0.31	0.31	86.05**
和 親	-0.11	0.11	10.00 *
好 惡	0.15	0.15	18.60**

**p<0.001 *p<0.01

가설 3: 의복착용자의 체형(비만체형, 정상체형)은 인물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에서와 같이 착용자의 체형에 의해 평가적, 외모적, 화친, 호오 차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정상 체형의 착용자가 더 호의적인 評價的 차원의 인상을 주었고, 더 호의적인 外貌的 차원의 인상을 주었

〈표 3〉 의복착용자의 체형이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

인상차원	비만체형	정상체형	F
評價的	-0.16	0.16	21.19**
力能的	-0.01	0.01	0.15
外貌的	-0.39	0.39	1408.30**
和 親	0.20	-0.20	32.21**
好 惡	0.10	-0.10	7.47*

**p<0.001 *p<0.01

다. 즉, 더 눈에 띠고 세련되었으며, 화려하고 어울리며, 착용자가 날씬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비만 체형의 착용자는 더 호의적인 和親 次元의 인상을 주었다. 즉, 더 친밀하고 부드러우며, 따뜻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또 한 더 호의적인 好惡 次元의 인상을 주었다.

2. 변인간의 상호작용

세 독립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고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評價的 次元에서 의복범주와 유행성 변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고, 의복범주와 체형 변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다. 外貌的 次元은 의복범주와 체형 변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和親 次元은 의복범주와 유행성 변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다.

1) 의복범주와 유행성 차원의 상호작용 효과

한복 착용자가 서양의복 착용자에 의해 評價的 인상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여졌다. 한복은 유행의복 착용자와 크라식의복 착용자에 대한 評價的 인상과 비슷하였

으나 서양의복은 크라식의복 착용자가 유행의복 착용자보다 評價的 次元에서 좀 더 긍정적 인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착용자가 유행성에 관계없이 대체로 서양의복 착용자보다 和親 次元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또한 한복 착용자나 서양의복 착용자에 관계없이 크라식의복 착용자가 和親 次元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2) 의복범주와 체형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한복 착용자는 정상 체형의 착용자와 비만 체형의 착용자가 전달한 評價의 인상은 비슷하나 서양의복 착용자는 정상 체형의 착용자가 비만 체형의 착용자에 의해 評價의 인상의 영향을 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의복 착용과 한복 착용에 관계없이 정상 체형의 착용자가 비만 체형의 착용자에 의해 外貌的 次元에서 더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고, 같은 정상 체형의 착용자일지라도 서양의복 착용자가 한복 착용자에 의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표 4> 각 차원의 인상차원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

印象次元 變因	評價的	力能的	外貌的	和親	好惡
	F값	F값	F값	F값	F값
M1 衣服範疇	200.28***	259.78***	28.59***	36.32***	7.82**
M2 流行性	138.38***	13.49***	86.05***	10.00***	18.61***
M3 體形	21.19***		140.30***	32.21***	7.47**
M1×M2	147.98***			7.88**	
M1×M3	10.86***		19.04***		
M2×M3					

***p<0.001,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기록하였다.

<표 5> 각 변인이 착용자의 전문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變因	衣服範疇		流行性		着用者의 體型	
	한복	서양의복	크라식의복	유행의복	비만	정상
専門職 이미지	3.3 ^a	5.3	4.4	4.2	3.9	4.7
F값	288.1**				32.2**	

**P<0.001

^a: 숫자는 평균값임

〈표 6〉 각 자극물이 전달한 전문직 이미지의 차이^a

刺載物	1. KF2 ^d	2. WC1	3. WF2	4. KC1	5. WC2	6. KF1	7. KC2	8. WFI
専門職 이미지	4.05 ^b	5.52	5.41	2.95	5.78	2.85	3.64	4.66
subset	3 ^c	5	5	1	5	1	2	4

^a : 던컨의 다중범위 검정으로 분석함.

^b : 최고값은 7점, 최저값은 1점, 값이 클수록 專門職 이미지가 강한 것임.

^c : subset의 숫자가 클수록 더 긍정적인 값이고, 같은 subset에 속한 것은 그 인상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임.

^d : 자극물의 기호 K : 한복 W : 서양의복
 F : 유행의복 C : 크라식의복
 I : 비만체형 2 : 정상체형

3. 전문직 이미지에 대한 평가 결과

의복범주, 유행성, 착용자의 체형이 專門職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 점수를 가지고 변량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의복범주와 착용자의 체형은 專門職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 서양의복 착용자가 한복 착용자보다 더 강한 專門職 이미지의 인상을 주었고, 비만 체형의 착용자보다 정상 체형의 착용자가 더 강한 專門職 이미지의 인상을 주었다(표 5 참조).

각 자극물이 전달한 專門職 이미지를 던컨의 다중범위 검정에 의해 분석한 결과 subset의 수가 5개였다. 이는 각 자극물이 전달한 專門職 이미지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복 착용자, 크라식 서양의복 착용자, 정상 체형의 유행 서양의복 착용자가 높은 專門職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반면에 비만 체형의 한복 착용자는 가장 낮은 專門職 이미지를 전달하였다(표 6 참조).

V. 논의 및 연구제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인 김재숙(1991)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노인의 인상 구조와 대학생의 인상구조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노인은 자극물에 대해 호오평가, 화친 차원의 인상이 두드러진 반면 대학생은 평가적, 역능적 차원의 인상이 더 두드러졌다. 의복범주(한복과 서양의복) 변인은 다섯개의 인상차원 중 평가적, 역능적, 화친 차원에서 다른 두 독립변인 즉 의복의 유행성, 착용자의 체형에 비해 변별력이 두드러졌다(〈표 3〉 참조). 이를 볼 때 대학생들도 한복과 서양의복의 범주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주어진 정

보들을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김재숙(1991)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각자들은 한복과 서양의복을 範疇前刑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그 사람의 문화적 경험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McCracken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복을 통한 對人知覺과정에서 의복 범주화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실험으로 규명하는 것과 또한 의복범주화 이론이 대인지각과정에서 의복의 효과에 대한 하나의 담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의복범주, 의복의 유행성을 변인으로하여 의복범주화 이론을 확장시키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을 통한 대인지각과정에서 범주화 이론을 중심으로 의복범주, 유행성 차원, 착용자의 체형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지각자는 자극물을 접했을 때 문화적 고정관념과 의생활 경험에 의한 範疇典訓으로의 복착용자를 지각하며, 또한 대학생들이 노인들과 다른 인상차원을 형성한 결과는 지각자마다 각 印象次元에 사용하는 범주전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지각자는 대인지각과정에서 일정한 범주전형을 소유하고 있다는 형태주의적 이론의 범주화 개념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자극물 제작에서 머리와 얼굴 및 색상의 정확한 통제가 어려웠고 자극물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림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인상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의복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의복범주 이외의 다른 범주에 대한 인상효과를 조사하는 것과 각 자극물과 변인에 대한 집단 간의 인상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장혜원, 고애란,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pp. 211-227, 1991
- 장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pp. 31-43, 1990
- 장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I)-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2), pp. 73-84, 1990
- 김재숙,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이인자, 송선우, “의복과 인물이 첫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1), pp. 27-38, 1982
- 이주현, “의복단서가 이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조궁호, “情報의 評價特性 및 조합의 크기에 따른 好惡와 和親 次元 印象 반응의 차이”, *사회심리학 연구*, 1(2), pp. 279-296, 1983
- Bruner, J.L., Goodnow, J.J., & Austin, G.A. *A Study of Thinking*. New York: Wiley, 1956
- Cantor, N., & Mischel, W. “Traits as Prototypes: Effects on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5(1), pp. 38-48, 1977
- Cash, T.F. “The Impact of Grooming Style on the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Solomon, M.R. *The Psychology of Fashion*, Mass., Lexington Books, pp. 343-355, 1985
- Conner, B.H., Peters, K. & nAGASAWA, R.H.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pp. 32-41, 1975
- Dahorst, M.D. “Meaning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2), pp. 39-48, 1985
- Depboye, R.L., & Arvey, R.D., & Terpstra, D.E. “Sex and Attractiveness of Raters and Applicants as Determinants of Resum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3), pp. 288-294, 1977
- Douty, H.I., & Brannon, E.L.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s for Female Figur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pp. 122-137, 1984
- Forsythe, S.M. “Dress as an Influence on the Perceptions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in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984
- Forsythe, S.M. “Effect of Clothing Masculinity on Perception of Management Traits: Does Gender of the Perceiver make a Differenc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6(2), pp. 10-15, 1988
- Harps, S.S., Stretch, S.M. & Harp, D.A. “The Influence of Apparel in Responses to Television News Anchorwomen”, Solomon, M.R., *The Psychology of Fashion*, Mass., Lexington books, pp. 279-291, 1985
- Johnson, B.H., & Nagasawa, R.H., & Peters, K. “Clothing Style Differences: Their Effect on the Impression of Sociabil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1), pp. 58-63, 1977
- Johnson, K. & Roach-Higgins, M.E. “Dr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Women in job Interview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5(3), pp. 1-8, 1987
- Koffka, K.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1935
- Lennon, S.J., & dAVIS, L.L.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Theoretical Perspectiv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7(4), pp. 41-48, 1989
- Lennon, S.J.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pp. 195-203, 1988
- McCracken, G. *Culture and Consumption*, Bloomington: Indiana Press, 1988
- Paek, S.L. “Effect of Garment Style or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5(1), pp. 10-16, 1986
- Sweat, S.J., & Zentner, M.A.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Gender Difference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pp. 175-186, 1985
- Thurston, J.L., & Lennon, S.J., & clayton, R.V.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pp. 139-150, 1990
- Workman, J. “Effects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Attire on Attributions of Personal Disposition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1), pp. 20-23, 1984-85